

국내 최대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해남서 열린다



10월7일~9일, 오시아노 오토캠핑장서 개최

3200여명 참여... 전시·축제 융합형 행사 풍성

국내 최대 규모로 기획된 캠핑관광 박람회가 전남 해남에서 열린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2023년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를 오는 10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해남군 오시아노 오토캠핑장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박람회는 '모두의 캠핑'을 주제로 캠핑 장비와 캠핑용품 전시·판매가 이뤄진다. 여기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경연대회와 체험 프로그램,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난 6월부터 오시아노 오토캠핑장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예약 접수를 받아 현재 700개 팀 3200여명이 참여를 확정했다.

박람회 첫날에는 스노우라인, 호상사, 캠프벨리 등 대형 캠핑기업을 비롯해 110개 기업이 150여개 부스를 설치하고 캠핑용품 전시·홍보를 시작한다.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는 열기구 체험과 낚시대회 등 각종 체험도 진행된다.

행사장에선 '전남도 펫 페스티벌'이 동시에 열려 반려견과 애견인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후 6시에는 개막식과 함께 로이킴, 안예은 등 유명 가수과 가을밤 낭만을 노래하는 '오시아노 뮤직페스타와 불꽃놀이'를 펼친다.

10월8일에는 참여·공연 프로그램으로 그림그리기 대회, 버스킹, 캠핑 기초교육, 캠핑 요

리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

9일 박람회 마지막은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줄기와 걷기 행사를 결합한 플로깅 보물찾기 행사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먹거리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빈손 캠핑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남도는 박람회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진드기 등의 해충 방제부터 캠핑장 주변 풀베기,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해 캠핑객 맞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시와 축제를 융합한 캠핑박람회는 지역 축제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전남 지역 캠핑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에 오시는 캠핑 가족과 관광객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끽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군, 리마인드 푸소(FU-SO)로 관광객 손짓

강진군은 오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기념해 '푸소(FU-SO)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푸소 홈커밍데이는 한번 푸소를 경험했던 체험객이 가족, 친구와 함께 다시 강진을 방문해 푸소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갈대축제에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학생 푸소, 공무원 푸소, 일주일 살기 등 강진에서 진행한 푸소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체험객과 그 일행으로, 최대 6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9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푸소 홈커밍데이는 1인 2만 원의 참가비로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푸소 농가에서 숙박하며 3끼의 식사 제공, 다도 체험, 제8회 춤추는 강진만 갈대축제장 관람 등의 여행프로그램으로 내실있게 구성한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협약 2026년 10월31일까지 3년간 운영

진도군이 지난 21일 진도군청 회의실에서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식은 해양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은 ▲선박 비상탈출 ▲선박 기술기 체험 ▲익수자 구조체험 등 13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2026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과 함께 해양안전교육과 국·내외의 해양관련 행사 유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계자는 "국민해양안전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공공기관의 팍투어 운영 등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세계 곳곳에서 완도 해조류 양식장 찾는 발길 이어져



완도군은 지난 20일 세계은행(월드뱅크 그룹), 양식 관련 국제사업 컨설팅 기관인 Hatch innovation, 수산양식관리협회 한국 사무소(ASC Korea) 등의 관계자들이 해조류 양식장 및 가공 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관계자 등 해조류 양식장·가공 시설 방문 향후 기술 이전 및 협의회 구성 통해 글로벌 플랫폼 개발

이번 방문은 해조류 양식산업 현장 확인 및 기술 이전을 위한 사전 방문으로 이후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완도군은 전국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다시마, 톳, 매생이는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다시마는 14만 톤, 톳 5천5백 톤, 매생이 2천3백 톤을 생산했다.

특히 다시마와 톳은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완도 해조

류 양식장의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이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해양수산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 간담회 개최

장흥군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해양수산 분야 활성화를 위한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군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재최된 이번 간담회는 5개읍면 어촌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판매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 호소, 어민 정주여건 개선, 노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